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현장 배수 문제 해결

농진청, 23일 농업과학기술원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현장 설명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국립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에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을 소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양파, 마늘 등 주요 작목연합회와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농업인이 기존 경운 작업과 같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하는 기술로, 경반층을 파괴하고 땅속에 배수로를 형성하는 배수를 좋게 한다. 비용이 합리적이고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은 물론 콩, 조식(옥수수 등) 등 하계작물 재배에도 적합하다.

또한, 자재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토양 배수성을 개량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다.

이 기술을 충남 홍성 양파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10아르(a)당 생산량이 20.2% 증가했다. 또한, 전복별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국립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에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을 소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연다.

치도 익산 콩 재배 농가에서는 기존보다 수확량이 53.8% 늘었으며 배수 성능이 2.8배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배수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논을 이용한 밭작물 재배가 늘고 있으나 대형 농기계 사용이 잦은 논에는 경반층이 형성돼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배수 불량으로 생육 부진, 수세 저하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

특히, 양파, 마늘 조사료 등의 논 재배면적은 4년간 14% 늘었으나 지난겨울 평년(89.0mm)보다 2.7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잦은 비, 일조량 부족으로 병충해 증가, 발마를 발생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때의 배수 개선을 위해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을 개발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제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가 농업인들이 마주한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더 많은 농업인이 이 배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에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4,200만 원을 기부한다.

호우 피해복구 동참... 4200만원 기부

국민연금공단,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5곳에 성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에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4,200만 원을 기부한다.

공단은 임직원후원금과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22일부터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충북·전북·경북지회로 전달한다. 먼저 22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와 정수현 국민연금나눔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해 성금 1,700만 원을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전달했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공단의 성금이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술적인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재민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사업단 통합관제센터 건축설계 완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19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사업단 통합관제센터(이하 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 건축 설계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 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합플랫폼 시설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에너지플랫폼을 운영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돕고 CCTV·감지센서가 달린 스마트시설을 통하여 화재·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지원한다.

그 외에 홍보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의 개방형 휴게·사무 공간을 갖추고 외부 녹지 환경을 마련해 방문객은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LX, 호우 피해복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유실된 경계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 감면

LX한국토지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는 집중호우로 충청·전북·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이다.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a.lx.or.kr>),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LX 어명소 사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3년 강원도 강릉 산불, 세종·충청 등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수해피해 가게·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고객별 최대 500만원 지원... 최고 1.0%p 금리 감면·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22일부터 시작한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고객은 2천만 원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고 1.0%p까지 금리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기존 대출 건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카드결제 최대 6개월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 완주, 익산, 군산을 비

롯한 도내 시의지역, 중부지역(대전, 충청)의 당행 영업점에 피해복구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빠른 상담 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중소연합봉사단원은 지난 20일, 양천해누리복지관(관장 김경환)의 장애인 청소년 20명과 함께 일산 이쿠이플라넷을 찾아 문화관람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기사랑나눔재단, 제67차 중기연합봉사활동 실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은 지난 20일, 양천해누리복지관(관장 김경환)의 장애인 청소년 20명과 함께 일산 이쿠이플라넷을 찾아 문화관람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회적 참여와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봉사자와 장애인 청소년이 1:1 매칭을 이루어 일산 이쿠이플라넷을 함께 관람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옥기 기자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오늘 함께 한 이 시간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하여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음식 키트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8월 29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Lovely Concert'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